논술은 훈련, 논쟁적 책으로 단련하기

사물의 관계맺음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키워야

정용휴 인천 대건고 교사

올해 들어 첫 철학수업시간이다. '철학' 이란 과목이 낯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철학이란 무엇일까?" 냉랭한 아이들….

현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철학적 사고' 를

철학은 물음표(?)이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답변 속에서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근거를 이야기해 보는 작업이다. 때문에 철학은 전문가만의 향유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향유물이다.

오늘날 수많은 가치들이 부딪치고, 그 속에서 판단을 하고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물음표로서 철학은 필요하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광풍이 불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비판적 사고에 대한 요구는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복잡해진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가치가 절실하다. 각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을 정확하게 찾고,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사법고시를 통해 판사에 임용된 자가 판결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전에 있지는 않다. 법전의 내용은 모 포털 사이트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다. 법전을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거로 그 법전을 보게 되는가가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이다.

논술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작문은 글쓰기이다. 논술은 논리적 글쓰기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논리' 라는 것이다. '논리적이다' 라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글쓰기의 장르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 하지만 모든 장르의 글이 근거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논술은 반드시 근거를 대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의 의미로 이런 말을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소이다." 여자의 답변이 온다. "왜 얼굴을 보아야 하는지 근거 100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했다면, 썰렁이 수준이다. 감성적인 부분은 감성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술은 반드시 왜 그런지를 밝혀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철학은 질문

論述

과 답변의 묶음이고, 그 속에서 상호간의 관계 맺음을 하고, 풀고 하는 작업이다. 이 속에서 비판적 사고가 작동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술이 왜 부각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 그렇다면 적합한 근거를 찾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장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 제시하는 훈련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독서를 권한다. 간접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독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 본다. " 시험과 관련되지 않은 책과 거리를 둔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의 답변이 나온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요." 다시 생뚱맞은 질문을 해 본다. "너희들은 바보니?" 아이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억울하면서도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전집을 사 주셨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습지 또는 학원으로 내미는가?" 중학생이 되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력적인 측면도 문제가 발생하고, 독서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너희들은 바보니? 부모가 바보니? 선생님이 바보니? 아니면 우리 모두가 바보니?"

표면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책 몇 권 읽는다고 갑자기 비판적 사고가 형성되고, 문학책을 읽으면 감성이 무럭무럭 자라는가? 논술 때문에 또다시 우리 아이들은 책이라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히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를 통한 논술과 관련하여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글에는 문학적인 글과 실용적인 글이 있다.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논술에서의 효과적인 독서 방향 때문이다. 문학적인 글을 많이 읽어서 마음 저 한구석에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읽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타당하고 건전한 근거를 제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논술을 위해서는 방법적으로 논쟁적인 책들을 보자는 것이다. 염상섭의 《삼대》를 20번 읽는다고 반드시 논술이 되는지…

논술에 관심이 많은 1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 1학년 때는 400자 이상 쓰지 말자. 토론을 할 때는 근거 3가지만 대자. 너희들은 뛰어난 천재이다. 그 어려운 과목들을 제도권 교육에서 9년 간을 배워왔고, 그것도 모자라 학원 생활의 베테랑이다. 더 이상 그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습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적용해 보자. 그리고 문학적인 글을 보면서 저 깊은 마음속의 소리를 듣자고….

정용유 선생님이 추천하는 논술력 향상도서

철학이 물음표라면,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논리 · 논술교육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의 책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01 《사회를 보는 논리》, 김찬호, 문학과 지성사: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회를 발견하고, 또한 사회를 탐구하면서 '나'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색,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지향하는 점이다. 또한 이 책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 모습과 통계 그리고 보이는 현상 뒤에 감춰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순한 읽기 자료에만 그치지 않고 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론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덧붙여 책의 활용 가치를 한층 높였다.

02 《소크라테스의 변명, 진리를 위해 죽다》, 안광복, 사계절: 소크라테스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문들을 풀어 주는 《소크라테스의 변명》해설서. 원작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아 청소년들이 읽기 쉬운 언어로 새로 번역하고,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아울러 그 속에서 원작자가 말하고자 한 참뜻을 충실하게 해설했다.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전문을 차례로 따라 가며 고대 그리스의 상황과 고발자들의 논리, 법정의 풍경을 전달하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03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21세기의 친일문제》, 복거일, 들린아침: 친일 문제는 논의만 계속될 뿐 어떠한 결말도 나지 않은 상태이다.《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는 기존의 역사 비평서와 달리 친일파 숙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호를 내세운다. 그 근거로는 방대한 자료 조사와 사료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친일파 청산과 함께 저항 운동 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민족 정기를 높이는 데는 부끄러운 친일 행위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보다는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는 친일파 숙청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접근한다.